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독서가져왕

1주차	일시	4 월 2 일 09 : 50 장소명: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지현 2453069	O
		박지민 2453073	O
		신현지 2553036	O 온라인참석
	진도	도서명:	진도페이지: 8 p. ~ 120 p.
	[좌측부터 홍지현,박지민] [홍지현의 토론논제1]: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자체스키는 자신이 잃어버린 능력-게임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반면, P선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만약 나에게 P선생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느쪽이 더 비극적 일까? 상황을 알고 있는 쪽,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쪽? 홍지현: P선생의 성격이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나온다. 내가 만약 P라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즉, 시각처리능력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할 것이다. 나는 때로는 몰라도 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P선생이 교수의 직업을 쫓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자신의 지병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P선생의 아내 역시 지병에 의해서 변해버린 p의 그림을 비구상그림으로 발전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지지해주었기에 그의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면 과거의 나 답게 살 수 있도록 병을 인지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박지민: 반대의 의견에서 만약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을 것 같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타인은 알지만 나만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화 트루먼 쇼와 다를바가 없다. 실제로 난청을 겪은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 자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완치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난청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 질병에 대해서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현지: 만약 나에게 P 선생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상황을 알고 있는 쪽이 더 비극적일 것 같다. 자제츠키처럼 자신의 상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 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할 기회 또한 존재한다.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P 선생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이 엉뚱해지는 순간들을 계속 겪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가 더 비극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민의 토론논제2: P선생의 아내는 P가 시각처리능력 장애를 앓고 난 후 그림이 사실주의에서 비구상적 그림으로 변했다며 칭찬했다. 그렇다면 시각처리 능력 장애를 얻더라도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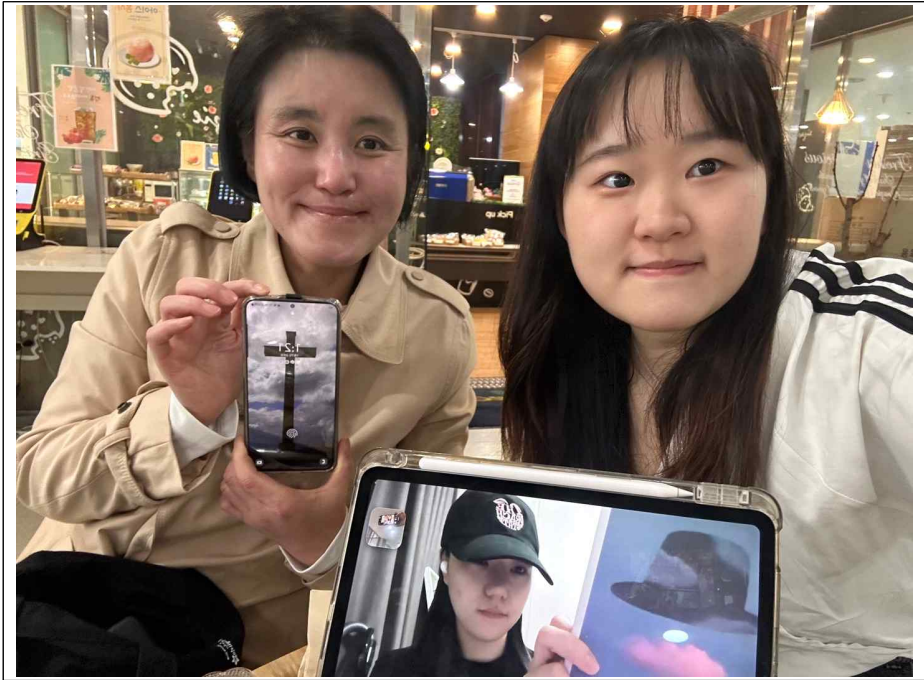
박지민: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AI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얻지 못한다. AI는 그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대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입력-출력 형태의 HCI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 예술가의 의도가 담긴 하나의 작품이 아닌, 단순히 지병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의 형태라면 시각처리능력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단순한 증상으로서의 지표가 되는 것이지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홍지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루이스웨인이라는 고양이 삽화가가 있다. 그는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지만 아내가 죽고 난 후 조현병을 앓으며 일반적인 고양이의 형태가 아닌 다소 '기괴한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설령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내면에는 그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그림은 조현병을 앓고나서 유명해지며 '비운의 고양이 화가'라는 타이틀로 현대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며 예술로 받아들이고 그의 생애를 이해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그의 그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즉, 그리는 행위 자체로 '예술'이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초만에 본 풍경을 기억하고 세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스퍼거증후군을 앓음과 동시에 어떠한 다른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다. AI가 아닌 인간이 하는 것에는 모든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신현지: 나는 시각처리능력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예술은 단순히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선생의 경우, 시각 인식 불능증을 겪은 후 그의 그림이 사실주의에서 비구상적 그림으로 변화했다. 이는 그가 현실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시각적 경험이 창의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기존의 시각적 이해 방식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술을 통해 여전히 자신만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실제로 미술사에서도 신경학적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앙리 마티스가 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후 '컷아웃'(색종이 오려 붙이기) 기법을 개발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을 찾았다.

예술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창적인 시각과 감각에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시각 인식 불능증 같은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내 감각이 변화한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창조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주차	일시	5월 9일 13 : 00 장소명 그라찌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지현 2453069	O 온라인참여
		박지민 2453073	O
		신현지 2553036	O 온라인참여
		석유나 교수님	O
	진도	도서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진도페이지: 154p. ~ 215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석유나 교수님, 박지민, 홍지현]	
		[홍지현의 토론논제1] 2부- 레이의 투렛 증후군은 할들의 투여로 인공적인 균형을 찾았고 병 없는 인생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한다. 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그의 말이 인상깊다. '니체의 말을 인용한 '지독한 고통을 극복했을 때야말로 정신은 궁극적으로 해방된다.' 그렇다면 자기합리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건강의 상태에 도래하는가? 신현지: 니체가 말한 '위대한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한 육체적 무병이 아니라, 고통을 온전히 체화하고,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의 단계이다. 레이의 경우, 투렛 증후군이라는 병리적 조건을 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창조적 리듬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병을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자율성과 해방감을 얻은 것이다. 결국 '위대한 건강'은 결핍 없는 삶이 아니라, 결핍과 갈등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박지민의 토론논제2]

레이는 자유분방하며 드림을 치면서 틱에 의해 충동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그는 틱에 의해 해방을 느낀다. 만약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이 틱을 치료하라는 말을 한다면 나라면 내가 '해방'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만약 나라면, 치료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 큐피드병에 걸린 90세 할머니의 경우, 타인이 병을 치료하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본인이 행복하다면 과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석유나 교수님 의견: 인간 존엄성이 있고 존중받 마땅하고 타인이 판단할 수 없다.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누구든 간에 존중 받아야 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살면서 본인이 병을 오픈하고 나는 증세가 있어도 행복하다는 부분을 존중한다. 본인이 행복하다면 질병의 반대 유무와 상관없이 제3자는 지지해줘야 한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다른 존중, 중년이라면 치료를 해야할 것. 즉 환자의 의견을 독단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신현지 : 큐피드병(해룡증후군)에 걸린 90세 여성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병은 객관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주관적 삶의 질로 판단되는가?”이다. 의학은 보통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려 하지만, 색스는 병을 삶의 한 형태로 바라본다. 90세의 여성은 큐피드병 상태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명백한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타인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상태일 지라도, 그녀가 삶에 만족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강제로 교정해야 할 이유는 설득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정체성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료는 단순히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병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어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주관적 삶의 경험은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홍지현: 충동적인 면이 치료로 인해서 나아진다면 답답하더라도 치료를 할 것이다. 불편함도 느끼더라도 틱에 적응했다라면 늘 예술가로 살던 자신을 그리워하고 미화할 수 있다. 병은 병이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해도 치료를 하는 것이 옳다. 즉 치료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90세의 할머니의 경우, 타인이 병세에 대해서 치료하라고 강요할 순 없겠지만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것도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90세의 할머니라면 이전의 나다운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치료를 받을 것이다.

박지민: 인간이 해방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행복하며, 병이 있음에도 안주한다면 스스로에게는 자유일 수 있지만 병세의 부정적인 점이 악화될 수 있고 그런 변수가 없단느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실제로 틱 장애가 장애로 분류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큐피드병에 걸린 할머니의 경우, 이미 노년기이고 그녀가 노후에서 겪을 수 없는 즐거움을 찾았기에 그녀를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자신의 자유의지에 한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

	일시	5월 28일 16 : 00 장소명: 그라찌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지현 2453069	O
		박지민 2453073	O
		신현지 2553036	O
	진도	도서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남자	진도페이지: 220 p. ~ 285 p.
3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홍지현, 박지민]	
		[홍지현의 토론논제1] 고통받는 18세 소녀의 경우, 종양의 악화로 인해 큰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스테로이드 약 처방으로 인해 <회상>의 몽롱함을 느꼈고 고향으로 돌아간 듯한 몽롱한 정신세계에 있을 수 있었다. 만약 고통받는 7개월 시한부 환자가 있다면 그에게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편안함을 주는대신, 수명을 2개월로 줄이는 치료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홍지현: 나라면 무조건 사용할 것 같다. 전에 유튜브에서 본 시한부 암환자의 브이로그가 있었다. 그 환자는 삶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으며 빨리 죽고 싶어했다. 나는 차라리 그 환자가 죽기 직전이라도 몸과 마음이 편하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작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웃고 고통없이 잠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난 이 논제를 무조건적인 안락사 개념의 문제가 아닌 고통의 감각이 포함되는 의학적 치료의 개념에 더 가깝게 보기 때문이다. 박지민: 내가 당사자라면 쓸 것 같은데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지에 대한 대답이 어려워진다. 환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 권한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그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가족이라면 솔직히 바로 떠나보낼 용기가 없기에 그 치료에 대해서 섣뚱 찬성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신현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한부 7개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 남은 삶이 2개월로 줄지만, 훨씬 덜 고통스럽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이 경우,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이 길더라도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삶보다는, 짧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선택하는 게 더 인간다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결정은 혼자 내리기보다는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건 생명의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싶은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박지민의 토론논제2] C부인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 언제나 어릴 적 기억을 찾고 싶어 했는데 뇌졸중 때문에 회상을 겪으면서 어렸을 때 기억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어린시절 기억을 회상하게 되었고 뇌졸중이 치료 되고 나서 아쉬움을 느낄 정도였다. 또한, 쇼스타코비치는 탄환이 박혀 있지만 작곡의 힘을 받아서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병이 자신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도 관자엽 손상이 와서, 그들과 같은 회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억을 회상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홍지현: 내 자아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아득히 먼 1-3살 내지의 미취학 아동시절 으로 돌아가고 싶다. 첫 걸음마를 뗀 때의 부모님의 얼굴 , 돌잔치에서 웃는 부모님의 얼굴.. 젊은 부모님의 얼굴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절의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박지민: 훗날의 노인이 된 내가 회상 증상을 갖게 된다면 지금 올해의 대학교 생활일 것 같다. 22살의 기억,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모로 두루뭉실 했던 기억에서 가장 선명한 의식이 있는 때가 올 한 해인 것 같다. 노인이 되었을 때 이때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슬플 것 같다. 회상과 같은 걸 겪는다면 지금 듣는 노래와 지금 순간이 재생된다면 그것을 끄기 아까울 것 같다.

신현지:기억은 단지 머릿속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자아의 일부이다. 나도 만약 관자엽에 손상이 생겨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아주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일상적인 장면들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혼내려 빗자루를 들던 순간이나, 아빠가 나를 번쩍 안아 올렸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 흐릿해졌지만, 그런 기억은 지금의 나를 만든 감정적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경험이 될 것 같다.

4주차	일시	6 월 9일 18 : 30 장소명 미래관B1 그라찌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지현 2453069	O
		박지민 2453073	O
		신현지 2553036	O
		석유나 교수님	O
	진도	도서명:	진도페이지: 288 p. ~ 385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신현지, 박지민, 석유나교수님, 홍지현] [홍지현의 토론논제1] 4부-저자 올리버는 쌍둥이나 호세처럼 자폐를 가진 이들이 ‘창조적 지성’이 있고, 우리가 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중히 키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발작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때,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이는 비효율적인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질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실질적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자폐인의 세계와 일반 사회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진정으로 ‘다름’을 포용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기도 함.) 박지민: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잘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학교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졸업 후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게끔 법제화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자폐를 위한 특수 학교가 너무 적고 조건의 한계가 너무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확대해야한다. 그래야지 비장애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 전의 단계가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 자체에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신현지: 태도나 캠페인 쪽에서 바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폐아가 가진 다른 방식의 재능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가치 있다고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소통도구나 감각중심의 도구가 개편되고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그래야지 법제화를 하자는 고차원적인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다. 장애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석유나 교수님: 서번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자폐가 있는 사람들의 예시를 생각해 보았다. 자폐를 가족외에 품어 줄 수 있을까? 다운증후군의 예시를 들어보자. 물론 꾸준한 노력과 교육으로 의해 사회로 자폐자를 사회에 융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든다. 가족들에게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복지가 개편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그 비용은 세금에서 나갈 것이고 '받지 못하는 복지'에 세금을 내는 세대, 반발하는 세대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현지의 토론논제2]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4부는 지적장애나 자폐를 지닌 인물들이 단순히 '결핍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은 비정상으로 분류되지만, 때로는 매우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조세의 그림, 자폐 쌍둥이의 숫자 감각, 리베카의 시적 감수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는 '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이들의 독특함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려 한다.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누구의 기준으로 설정하며, 이 기준은 개인의 고유한 재능이나 정체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박지민: 소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자폐로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서번트는 더 적다. 대다수는 소수자가 아님을 뜻하기에 그 경계가 다수-소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정상-장애인에서 비장애인-장애인 이 된 것처럼, 좋고 나쁜 것이 아닌 다름으로 경계를 나눠가야 한다. 장애인과 융합이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잘 못건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인가보다. 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홍지현: 역시 다수와 소수로 나뉘고 다수가 자연스럽게 강자가 되고 정상이라는 기준 또한 그들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준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의 범주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준은 개인의 고유 재능과 정체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피한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을 동정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석유나 교수님: 지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동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살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의하면 인간은 극한의 순간에서 살고자 하는 본능을 보인다. 그것이 당연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그저 남들보다 잘 드러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방식을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하며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게 중요하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2453069 홍지현	뇌과학과 관련된 책이지만 의외로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태도로 삶에 대해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다. 만약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태도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지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지병으로 인해 예술성이 발휘된다면 지병을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와 같이 여러 가지 가상의 선택을 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말함으로서 나의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특히 예술 관련으로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대답이 나와서 흥미로웠다. 특히 교수님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2	2453073 박지민	생각보다 어려운 책을 선정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기대했던 내용보다 병리학적 내용이나 저자들의 사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은 옛날 책이지만 지금 현대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책이다.
	3	2553036 신현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자폐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조세의 감각적인 그림, 자폐 쌍둥이의 놀라운 숫자 능력, 리베카의 시적인 언어는 모두 그들의 독특한 인식과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 부르는 틀을 벗어나 있었지만, 그만큼 더 창의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그리고 사회가 그 기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재능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방식과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석유나 교수님	이 책이 심리학적인 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병리학과 같은 증상을 나타나게 됐을 때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되짚어보고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발현이 됐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의 발현이 됐을 때에 구성원이 감싸 안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이 끝나고 있는데 결말 부분이 두루뭉술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 나 또한 어린 시절의 감정과 과거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과거로와의 여행' 파트에서 특히 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긴 것 같다.
	5		